

세계 진(Gin) 시장 동향

기획조사팀

2009년에서 2010년 까지 세계 진(Gin) 시장은 경제위기와 맞물려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는 비단 진 뿐만이 아니라 타 주종 모두에 해당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은 경제위기 전에도 보드카, 럼, 테킬라 등 새롭게 부상하고 있던 주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있었고 다양한 칵테일 유행에 힘입어 막 성장세를 기록하려던 시기에 경제위기를 맞게 되어 더 타격이 있었다.

2009년 전세계 진 소비량은 5,800만 상자(1상자=9리터)로 전년에 비해 0.5%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세계 소비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필리핀의 ‘히네브라 산 미구엘(Ginebra San Miguel)’의 소비량이 3.5% 증가하고 일부 인도제품의 소비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필리핀과 인도의 저가 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는 하락세를 기록한 셈이다. 산 미구엘은 필리핀의 대중주이며, 인도의 ‘Blue Riband’와 ‘Carew’s’ 역시 대중주로 가격이 저렴하고 대중화되어 있어 경제위기나, 수입주류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소비가 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처럼 저가 진의 소비가 증가한 반면, 주요 프리미엄 진 시장인 미국, 스페인, 영국 등에서는 진 소비가 감소하였다.

세계 1위 프리미엄 진 시장인 미국에서는 2009년 1,050만 상자의 진이 판매되었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2.5% 감소한 양이다. 미국시장에서 진은 경제위기 전인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었던 만큼 경기가 회복되는 대로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진은 칵테일 유행에 힘입어 새로운 칵테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바텐더를 사이에서 칵테일 베이스로서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중이다. 바텐더들은 진을 사용

〈표 1〉 2009 세계 상위 10개 진 제품

단위 : 100만 상자 (1상자 = 9Liter)

순위	제품명	제조사	판매량				증감(%)
			2006	2007	2008	2009	
1	GINEBRA SAN MIGUEL	Ginebra San Miguel	27.2	28.1	29.4	30.4	3.5%
2	GORDON'S	Diageo	4.5	4.5	4.3	4.2	-2.5%
3	SEAGRAM'S	Pernod Ricard	3.4	3.4	3.4	3.0	-10.4%
4	BEEFEATER	Pernod Ricard	2.3	2.4	2.4	2.2	-7.2%
5	BOMBAY	Bacardi	2.1	2.0	2.0	2.0	-
상위5개 제품 소계			39.5	40.5	41.5	41.9	1.0%
6	TANGUERAY	Diageo	2.0	2.2	2.0	1.9	-3.0%
7	LARIOS	Beam Global Spirits & Wine	1.0	1.0	1.0	1.1	11.2%
8	BLUE RIBAND	United Spirits	1.5	1.4	1.0	1.0	-6.6%
9	GILBEYS	Diageo	1.0	1.0	0.9	0.9	-3.0%
10	Carew's	United Spirits	0.4	0.5	0.5	0.7	22.2%
상위10개 제품 소계			45.3	46.4	47.0	47.5	1.0%
기타제품			10.7	10.7	10.7	10.5	-1.9%
총 계			56.0	57.1	57.7	58.0	0.5%

* 자료 : Genever(네덜란드 진) 제외

〈표 2〉 2009 미국 상위 5개 진 제품

단위 : 1000상자 (1상자 = 9Liter)

순위	제품명	제조사	판매량				증감(%)
			2006	2007	2008	2009	
1	SEAGRAM'S	Pernod Ricard	3,090	3,130	3,025	2,865	-5.3%
2	TANQUERAY	Diageo	1,450	1,550	1,420	1,360	-4.2%
3	BOMBAY	Bacardi	965	1,000	1,020	1,015	-0.5%
4	GORDON'S	Diageo	850	810	825	810	-1.8%
5	New Amsterdam	E&J Distillers	30	100	420	525	25.0%
상위5개 제품 소계			6,385	6,590	6,710	6,57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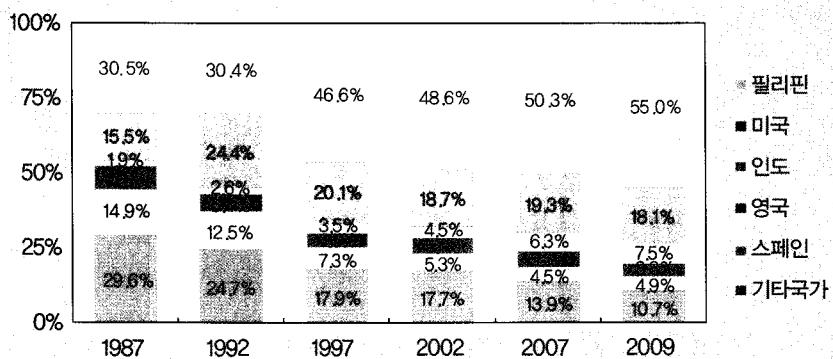
한 대표적 칵테일인 ‘진토닉’ 이외에 진을 사용한 다양한 칵테일을 선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입소문을 타고 다른 바와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내 1위 진 제품은 페르노리카의 ‘Seagram's’로 2위인 ‘Tanqueray’에 2배 이상 앞선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 뒤를 ‘Bombay’와 ‘Gordon's’가 잇고 있다. 한편 5위는 중저가

제품인 'New Amsterdam'으로 상위 4개 제품의 소비가 감소한데 반해 무려 25%의 판매증가율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서유럽에서는 주요 시장인 영국, 스페인에서 진 소비량이 감소하였다.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프리미엄 진 시장인 스페인에서는 2009년 286만 상자의 진이 소비되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8.5%가 감소한 양으로 스페인 경기악화와 관광산업의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그림 1〉 세계 진 시장 국가별 점유율 변화



영국의 경우 219만 상자가 소비되며 역시 전년에 비해 4% 감소하였다. 그러나 두 국가 모두 중저가대 진의 소비만 감소하였고, 프리미엄 진의 소비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두 국가 모두 미국과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진을 활용한 칵테일이 유행하고 있어, 향후 프리미엄 진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약술에서 시작한 진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종이 되었으나, 소비는 일부 국가에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전세계 진 총 소비량의 62.5%가 필리핀과 인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리미엄 진 3대 시장인 미국, 스페인, 영국에서 26.9%가 소비되고 있다. 즉 상위 5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진이 전체의 10.7%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곧 진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진 제조업체들은 신흥시장 진출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보드카 등 화이트 증류주에 익숙한 러시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외 독일, 호주, 캐나다 등의 주요 시장에서도 활발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진 업계는 진을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데 힘쓰는 한편, 보드카, 럼, 데킬라 등과의 치열한 경쟁 역시 이겨내야만 하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칵테일 유행과 함께 진이 바텐더

〈표 3〉 2009 영국 및 인도 상위 진 제품

(영국)

순위	제품명	제조사	판매량				증감(%)
			2006	2007	2008	2009	
1	GORDON'S	Diageo	1,115	1,180	1,175	1,125	-4.0%
2	PLYMOUTH	Maxxium	120	120	125	125	-
3	BOMBAY SAPPHIRE	Bacardi	95	100	100	100	-2.0%
상위3개 제품 소계			1,330	1,400	1,405	1,355	-3.5%
기타제품			915	890	880	835	-4.8%
총 계			2,250	2,295	2,280	2,190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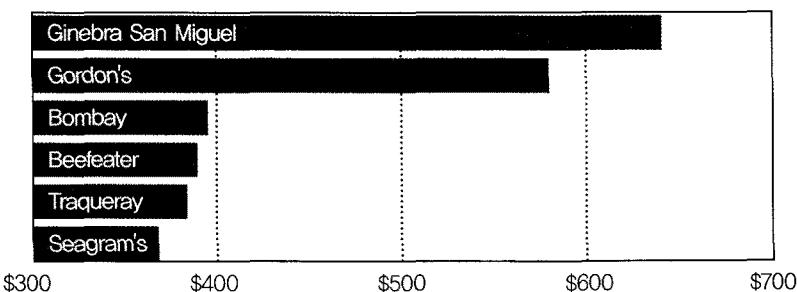
(인도)

순위	제품명	제조사	판매량				증감(%)
			2006	2007	2008	2009	
1	Blue Riband	United Spirits	950	960	980	1,090	11.2%
2	Carew's	United Spirits	360	450	540	660	22.2%
상위2개 제품 소계			1,310	1,410	1,520	1,750	15.1%
기타제품			2,020	2,650	2,760	2,570	-6.9%
총 계			3,330	4,060	4,280	4,320	0.9%

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프리미엄 제품들의 수요가 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밝은 편으로 보인다.

〈그림 2〉 2007 주류 진 제품별 매출액

단위 : 백만상자(1상자=9리터)



〈출처〉 'Impact' 지 2010년 12월호